

기러기아빠의 경제적 삶과 가정생활

이 성 립(성균관대학교 부교수)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열은 유난한 것 같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공부 뒷바라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유난한 교육열을 잘 보여준다. 조선시대에는 과거시험이나 학문에만 정진하는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인은 밭일을 하고 길쌈을 했다고 한다. 심지어 공부에 여념 없는 남편 밥상에 고기반찬과 술을 차려주기 위해 머리까지 잘라 판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도시가 생기고 도시에 학교가 설립되면서 이제 농촌에서는 열심히 농사지어 아들을 도회지 명문 학교에 보낸다. 논 밭 팔고 황소 팔고 전 재산을 다 처분해서라도 아들의 공부 뒷바라지를 한 경우가 수도룩했다고 한다. 농촌에 사는 부모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출세한 아들이 시골 부모와 도시 부인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용은 한동안 TV 드라마의 주된 소재가 되기도 했다. 대충 이런 드라마에서 시골부모 입장은 오로지 자식만을 위해 한 평생과 전 재산을 다 바쳐 교육시킨 부모 마음 몰라주는 아들이 야속하고 원망스럽고 허탈하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의 뜨거운 교육열은 장래 영어능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자녀를 교육여건이 보다 나은 곳에서 교육시키고자 하는 열망에 따라 조기 유학열풍으로 이어졌고 기러기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형태를 등장시키고 있다. 이 논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러기 가족은 어린 자녀를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아버지는 국내에서 열심히 일하여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 어머니는 말도 통하지 않은 이역만리에서 홀로 아이들을 돌본다.

교육에 대한 인적자본투자론으로 우리나라 가족의 이러한 과도한 교육투자를 적절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인적자본투자이론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교육비용과 기대이익을 비교하여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이해된다. 자녀의 능력이 출중하여 높은 교육투자수익을 기대하거나 경제적으로 교육시킬 여유가 있거나 이자율이 낮아 자산으로부터의 기대이익이 낮을 때 교육투자가 증가한다고 설명하는 이러한 경제이론으로는 한국적 교육투자가 설명되지 않는다.

하루 온종일 밭 매고 길쌈하는 것으로 모자라 머리까지 잘라서 공부하는 남편을 봉양하는 헌신적 아내, 논밭 황소 전 재산을 다 팔아 아들을 도회지 학교로 보낸 근대화시대의 농촌 부모, 그리고 엄마와 함께 자녀를 외국 학교에 보내고 혼자 사는 현재 기러기 아빠사이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경제적으로 전 재산을 다 쏟아 붓는 정도의 과도한 투자임과 동시에 가족원의 교육을 위해 자신을 위한 삶을 다 바친 전 생애의 올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이들의 교육적 투자는 단지 큰 투자수익이 기대되는 자녀에 대한 선별적이고 신중한 투자가 아니라 위험추구적인 투자의 성격을 가진다. 공부하고 교육을 함으로써 장래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해 불

확실성이 큰 투자에 기꺼이 승부를 걸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교육을 뒷바라지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도 하지만 가족원이 사회적 성공의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경험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만족과 위안을 얻는 것 같다. 넷째 교육을 위해 어떠한 희생이라도 기꺼이 감수한다.

교육에 관한 이러한 한국적 정서를 고려하면 세계화 시대를 맞아 기러기가족은 어쩌면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이 논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러기아빠가 겪는 문제의 양상을 보면 이러한 문제를 사적인 선택의 문제로 돌리고 사회적으로 무관심하기에는 심각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주는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나라 교육이 선진국 수준으로 선진화됨으로써 해외유학의 필요성을 줄이고 국민 모두가 양질의 교육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 단기적으로는 기러기가족의 경제문제, 가족문제를 지원하는 시장(특히 보험/대출 및 재무설계 부문) 및 생활을 지원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또한 조선시대 학문에 전념한 선비들에 의해 눈부신 유학의 발전을 이루고 도시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산업발전을 일궈냈음을 상기하여 한국 부모의 희생으로 해외에서 외국어 능력과 선진국 방식의 교육을 받은 한국의 인재들이 한국사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통로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